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역량이 사서직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남재우¹, 이수영^{2*}

¹건국대학교 인문사회융합대학 문헌정보학과, ²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The effect of career competency on librarianship career decis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ae-Woo Nam¹, Su-Young Lee^{2*}

¹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onKuk University

²Department of Library Media and Information Science, Daelim University College

요약 문헌정보학과는 졸업 후 사서 자격이 부여되는 전공으로 학생들은 도서관, 정보센터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사서직에 대한 전문성 인식과 진로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진로역량이 사서직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은 사서직을 높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사회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역량은 자기성찰, 자기표현, 진로성찰, 진로관리, 네트워킹 역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일반 대학생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셋째, 진로역량의 하위요인 중 자기성찰, 진로관리, 네트워킹 역량 순으로 사서직으로의 진로 결정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 역량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서직 진로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개발 및 진로준비에 관한 기초연구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s a major in which students can attain the position of a librarian and advance to positions in libraries and information centers. In this study, the professional perception of librarianship and career competency level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this academic discipline were identified, and the effect of career competency on the decision to pursue a career as a librarian was analyzed.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cognized librarianship as an occupation with high professionalism but thought that it was perceived to be an average line of work in the real world. Second, the career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were high in the order of self-reflection, self-expression, career reflection, career management, and networking competency, and showed a high overall level. This was higher than the average level of general college students. Third, the sub-factors of career competency, in the order of self-reflection, career management, and networking competency, were determined to be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decision to make a career as a librarian. Therefore, students with higher competencies are more likely to choose a career as a librarian. This study involves basic research on career development and career preparation for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it can be used as a base for career guidance.

Keywords : Career Competency, Career Decision, Career Guidance, Librarianship Awareness, Library and Informatics

*Corresponding Author : Su-Young Lee(Daelim Univ.)

email: sulibrary@daelim.ac.kr

Received April 14, 2022

Revised May 12, 2022

Accepted June 3, 2022

Published June 30, 2022

1. 서론

대학교육은 성인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교육과정이다. 이 과정의 학생들은 진로결정과 직업선택을 위해 지식을 쌓고 다양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1]. 진로결정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 결정과정의 진행 수준을 의미하며 미래 진로에 대한 확고한 수준 정도로 개념화된다. 그러므로 진로결정 수준이 높으면 전공 관련 직업 가치관이 정립되고 이에 맞는 준비과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2].

이러한 진로결정에 필요한 능력 중 하나는 진로역량이다. 이는 ‘개인이 주도적으로 생애 목표를 설정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자신을 조율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3]. 진로역량은 단순히 진로 관련 정보수집과 경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로개발 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므로 진로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4]. 이를테면, 진로성찰과 진로관리 등 진로역량의 세부 요인은 진로결정의 구체성과 확신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

이러한 진로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학생과 교수의 면담 활동을 장려하고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담프로그램은 전문상담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상담사는 학생의 전공특성과 교육과정, 진출 분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므로, 학생들은 진로면담을 교수에게 의지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같은 학생-교수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10].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이하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경우에도 교수와 학생의 긍정적 관계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높여주고 사서직과 같은 전문성 추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9]. 따라서 교수가 학생의 진로준비 상태 등 진로역량을 파악하고, 직업관 인식 등 세부적인 진로지도를 했을 때 학생의 진로개발과 진로결정 수준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특히 문헌정보학전공은 졸업 후 정사서 자격이 부여되며 학생들은 학업과정에서 사서에 대한 전문성 인식이 형성되고, 많은 학생이 장차 사서직을 희망하게 된다. 전공 자체에 명확한 진출 분야가 제시되므로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타 전공 대학생보다 진로역량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 관련 연구로는 경력 결정요인과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선호직업과 준비성에 관한 연구, 취업실태 분석, 직장으로서 도서관 이미지 분

석, 진로성숙도와 전문직 인식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5-9]. 그러나 빠르게 변하는 취업 동향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연구가 많지 않으며 진로연구 자체도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특히 진로역량과 사서직 진로결정의 인과관계를 밝힌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현대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직업관과 진로준비 행동을 분석하여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가 사서직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진로역량 요인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사서직에 대한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역량은 일반 대학생보다 높은 수준인가?

셋째,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역량 중 사서직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부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4년제 대학생 12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대상에서 전공지식이 얇은 1학년 학생은 배제하였고, 20대 2~4학년 학생을 임의추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총 5일간 인터넷 조사도구를 이용해 진행되었다. 개인에게 URL을 SMS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요청하였으며, 설문지의 첫 부분에 조사목적과 방법 등을 안내해 스스로 응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설문도구의 중복 응답 방지 기능을 이용해 조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측정도구는 진로역량, 사서직 전문성 인식, 사서직 진로 결정수준, 인구사회학적 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적 측정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 302명에게 조사를 요청하여, 168명이 응답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 48개를 제외한 120개의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G*Power 3.1을 통해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 수를 계산했을 때, 유의수준(α) .05, 검정력(1- β) .90, 중간 효과 크기 .15, 예측변수 5개 기준에서 116명이 산출되었다. 따라서 통계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 수는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2.2 통계분석 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ver.27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역량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해 문항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추출된 각 요인은 항목 간 평균치를 구해 한 개의 변수로 단일화하였고, 빈도분석을 실시해 표본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진로역량 및 사서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 사서직 진로 결정수준을 집계하였으며, T-검정과 ANOVA분석을 통해 성별 및 학년 간 평균치의 차이 여부를 검정하였다. 이후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고, 최종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회과학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인 $p < .05$ 에서 검정하였다.

2.3 측정도구 구성 및 검정

2.3.1 진로역량 측정도구의 구성

진로역량의 조사도구는 정지은, 정철영(2017)이 개발한 대학생 진로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11]. 척도는 Table 1에서와같이 총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진로성찰(Career Reflect)은 '진로 목적을 지속해서 성찰하는 역량'을 의미하며, 자기성찰(Introspection)은 '진로와 관련한 자신의 강점, 약점, 능력을 지속해서 성찰하는 역량'을 의미한다[11]. 자기표현(Self Express)은 '타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성을 표현하는 역량'이며, 네트워킹(networking)은 '진로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형성 및 발전시켜나가는 역량'이다. 진로관리(Career Management)

Table 1. Composition of Career Competency Scale

variable name	number of question	operational definition
career reflect	5	ability to reflect on career goals
introspection	5	ability to reflect on one's own characteristics related to career
self express	4	ability to express one's characteristics to others
networking	5	ability to form and develop career-related networks
career management	5	ability to take initiative in the career realization process
career search	5	ability to actively explore career-related opportunities

는 '진로 실현 과정을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관리하는 역량'을 의미한다[11]. 진로탐색(Career Search)은 '진로 기회의 능동적 탐색 역량'을 의미하며 요인분석에서 제거되어 변수로 사용되지 못하였다.

2.3.2 진로역량 측정도구 검정

진로역량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정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Validation of Career Competency Measurement Tool

iteam	commo-nality	factor				
		1	2	3	4	5
Career mgt4	.811	.735	.225	.084	.006	.164
Career mgt5	.698	.729	.307	.120	.256	.016
Career mgt3	.439	.721	.207	.178	.276	-.002
Career mgt1	.584	.681	.102	.137	.209	.339
Career mgt2	.412	.654	.235	.113	-.056	.261
networking2	.499	.195	.783	-.011	.127	.002
networking4	.667	.162	.742	.085	.031	.169
networking5	.613	.312	.691	.123	-.001	.172
networking1	.620	.181	.599	-.093	.258	.18
Career reflect4	.651	.138	.071	.871	.134	.101
Career reflect5	.567	.227	-.04	.715	.33	.156
introspection2	.672	.186	.22	.256	.698	.218
introspection4	.625	.12	.094	.221	.696	.277
self express4	.706	.185	.171	.100	.142	.700
self express2	.682	.113	.142	.075	.197	.602
self express1	.633	.221	.086	.303	.325	.398
Eigen value		2.893	2.374	1.608	1.534	1.469
Common Variance(%)		18.083	14.838	10.051	9.589	9.184
Cumulative Variance(%)		18.083	32.92	42.971	52.56	61.744
KMO=.849, Bartlett's $\chi^2=918.092(p<.001)$						

요인추출은 공통요인분석인 주축요인추출 방법과 베리 맥스 회전을 이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KMO측도는 .849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05미만으로 나타나 요인 적합성이 판명되었다. 요인추출 과정에서 요인적재치가 낮은 진로탐색 관련 5개 항목은 모두 제거되어 최종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최종 모형에서 각 항목의 공통성은 .4 이상이므로 추출된 요인의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다음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통해 측정문항의 신뢰도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3과 같이 신뢰도 계

수가 .691~.878범위로 나타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6미만 계수가 나타난 항목은 없었으므로 제외된 문항은 없었다.

Table 3. Reliability test of measurement tools

items	Cronbach's α	questions
career management	.878	5
networking	.836	4
career reflect	.832	2
introspection	.691	2
self express	.775	3
professional Perception	.635	5
career choice	.684	3

2.3.3 사서직에 대한 전문성 인식과 사서직 진로 결정 수준 측정도구 구성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서직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오해연과 김기영(2015)이 개발한 '공공도서관 사서 전문직 특성 인식 척도'의 일부 문항을 발췌해 사용하였다[12]. 측정문항은 '사서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직업이다', '사서의 담당 업무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사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자격 취득은 필수이다', '사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유용하다', '사서는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의 5개이다. 문항의 신뢰도는 Table 3에서와같이 .635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으로 검증되었다.

사서직 진로선택 결정수준은 연구를 위해 직접 개발하였다. 측정문항은 '도서관은 일하기 좋은 직장일 것이다', '나는 졸업 후 사서가 되고 싶다', '사서 이외의 다른 직업 분야에 관심이 없다' 등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684로 적절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서직 진로선택 결정수준은 '사서직 진로결정 수준'으로 명명했으며,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3. 연구결과

3.1 표본집단의 일반적 특성

표본집단은 모두 4년제 대학에 소속된 문헌정보학전공 대학생으로, Table 4에서와 같이 여성(66.7%) 응답자가 남성(33.3%)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문헌정보학과는 여학생 전공자가 많은 학과로, 2021년 기준 전국 문헌정보학과 입학생의 성비는 여성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었다[13]. 따라서 일반적인 문헌정보학과 소속 대학생의 성비를 봤을 때, 표본집단의 성비는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본집단의 연령은 모두 20대이며, 2학년 25명(20.8%), 3학년 66명(55.0%), 4학년 29명(24.2%)으로 분포되었다. 성별, 연령, 학년 등 연구수행을 위한 표본집단의 구성은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n=120)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n	40	33.3
	woman	80	66.7
age	20's	120	100.0
	2nd	25	20.8
	3rd	66	55.0
grade	4nd	29	24.2

3.2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서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응답자는 높은 수준으로 사서는 반드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 직업이며(4.37점),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으며(4.29점), 사회에 필요한 직업으로 인식(4.28점)하고 있다. 또한, 사서가 제공하는 정보는 유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4.14점). 그러나 사서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3.19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able 5. Awareness of the Librarianship of Colleg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LIS

question	N	M	SD
Librarianship requires a license	120	4.37	0.90
Librarians have expertise	120	4.29	0.67
A librarian is a necessary job in society	120	4.28	0.82
The librarian provides useful information	120	4.14	0.77
Librarian is recognized as a profession	120	3.19	1.23

3.3 진로역량과 사서직 진로결정 수준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역량은 Table 6과 같이 3.23~4.03점 범위이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기성찰(4.03점), 자기표현(3.97점), 진로성찰(3.96점), 진로관리(3.76)역량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으

며, 네트워킹(3.23)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사서직 진로결정 수준은 3.39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dependent variable	N	M	SD
career reflect	120	3.96	.93
introspection	120	4.03	.65
self-express	120	3.97	.85
networking	120	3.23	.92
career mgt	120	3.76	.77
career choice	120	3.39	1.02

3.4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진로역량, 사서직 진로결정의 차이

문헌정보학과는 여학생 구성 비율이 높은 학과로 진로역량과 진로결정 수준에서 성비에 따른 인식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학년의 차이로 인해 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간 차이는 연구결과 일반화에 문제가 되므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에 앞서 측정변수에 대한 집단별 평균점수 차이 여부를 검정하였다.

Table 7.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n=120)

dependent variable	group	N	M	SD	t	p
career reflect	male	40	4.18	.86	1.794	.075
	female	80	3.86	.95		
introspection	male	40	4.07	.67	.497	.620
	female	80	4.00	.64		
self-express	male	40	3.94	.78	-.304	.762
	female	80	3.99	.88		
networking	male	40	3.40	.96	1.422	.158
	female	80	3.15	.90		
career mgt	male	40	3.70	.81	-.634	.527
	female	80	3.79	.76		
Professional Perception	male	40	3.97	.642	-1.206	.233
	female	80	4.10	.464		
career choice	male	40	3.33	1.10	-.503	.616
	female	80	3.43	.99		

먼저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7과 같이 진로역량과 전문직 인식, 진로결정 수준 등 모든 독립변인에 있어 남학생과 여학생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3개로 구성된 학년 집단에 따라 독립변인 별 평균점수의 차이 유무를 검정하기 위해 ANOVA분석(사

후검증 Scheff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8의 결과와 같이 학년 집단에 의한 평균점수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8. One-way ANOVA results (n=120)

dependent variable		M	SD	F	p
career reflect	2nd	3.90	.78	.075	.928
	3rd	3.98	.98		
	4nd	3.97	.94		
introspection	2nd	4.15	.65	.695	.501
	3rd	3.97	.65		
	4nd	4.05	.64		
self-express	2nd	4.22	.69	1.399	.251
	3rd	3.89	.87		
	4nd	3.93	.88		
networking	2nd	3.27	.87	.590	.556
	3rd	3.29	.93		
	4nd	3.07	.97		
career mgt	2nd	3.93	.68	.763	.469
	3rd	3.71	.79		
	4nd	3.72	.82		
Professional Perception	2nd	4.19	.58	2.816	.064
	3rd	4.09	.48		
	4nd	3.87	.56		
career choice	2nd	3.60	.96	.834	.437
	3rd	3.38	1.00		
	4nd	3.24	1.12		

인구사회학적 집단 특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측정값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후 진행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 등은 성별 및 학년의 구분 없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후 분석결과는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볼 수 있다.

3.5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에 앞서 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Table 9와 같이 각 변수는 대체로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Table 9. Correlation analysis result (n=120)

	1	2	3	4	5	6	7
1	1						
2	.394**	1					
3	.495**	.544**	1				
4	.149	.361**	.344**	1			
5	.375**	.452**	.418**	.506**	1		
6	.215*	.374**	.455**	.468**	.491**	1	
7	.194*	.142	.191*	.180*	.251**	.293**	1

*p<.05, **p<.01

1.career reflect, 2.introspection, 3.self-express, 4.networking, 5.career management, 6.career decision, 7. Profession Recognition

세부적으로 진로성찰은 자기성찰($r=.349$), 자기표현($r=.495$), 진로관리($r=.375$), 진로결정($r=.215$), 전문직 인식($r=.194$)과 상관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기성찰은 자기표현($r=.544$), 네트워킹($r=.361$), 진로관리($r=.452$), 진로결정($r=.374$)과 상관관계에 있었다. 자기표현은 네트워킹($r=.344$), 진로관리($r=.418$), 진로결정($r=.455$), 전문직인식($r=.191$)과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네트워킹은 진로관리($r=.506$), 진로결정($r=.468$), 전문직인식($r=.180$)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진로관리는 진로결정($r=.491$), 전문직인식($r=.251$)과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진로결정은 전문직인식($r=.293$)과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상관계수(r)는 .180~.544의 범위 내 있으므로 변수들은 서로 간 낮거나 중간 수준의 상관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14]. 이 수준은 다중공선성이 의심될 수준이 아니므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3.6 진로역량이 사서직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역량이 사서직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able 10에서와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0.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n=120)

variables	B	S.E.	β	t	p	VIF
(constant)	-.073	.528		-1.39	.89	
career reflect	-.082	.099	-.074	-8.27	.410	1.437
self-express	.082	.149	.052	.549	.584	1.603
introspection	.331	.118	.273	2.801**	.006	1.715
networking	.259	.099	.234	2.617**	.010	1.432
career mgt	.348	.126	.263	2.756**	.007	1.635
$F=13.179(p<.001)$, $R^2=.366$, $adjR^2=.339$, $D-W=2.121$						

** $p<.01$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F=13.179$, $p<.001$) 설명력(R^2)은 33.6%로 나타나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Cohen(1988)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다[15]. 분산팽창지수(VIF)는 모두 1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성찰($\beta=.273$, $p<.01$)과 진로관리($\beta=.263$, $p<.01$), 네트워킹($\beta=.234$, $p<.01$)의 순으로 사서직 진로선택에 정(+)방향의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진로성찰과 자기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의 진로역량 중 자기성찰, 진로관리, 네트워킹 역량이 높아질수록 진로결정에 있어 사서직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 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사서직에 대한 전문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분석결과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서에 대한 전문성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사서직에 대해 자격증을 갖춘 전문직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 사서가 사회에서 실제 인정받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즉 높은 전문성으로 사회 꼭 필요한 직업이지만, 실제로는 기대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도서관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 사서의 업무를 전문가적 업무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교육을 받은 전공자가 아니라도 처리할 수 있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다[12,16]. 또한, 공공도서관의 사서 집단은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 이용자 집단이 인식하는 것보다도 더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12]. 종합하면, 사서는 전문직으로 일련되고 있지만, 일반 대중 및 사서 자신도 전문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이 같은 시각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학생은 배움의 과정에 있으므로 사서직에 대한 이상을 갖고 전문성만큼은 높게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사서직의 전문 수준이 높음(4.05점)에 비해 사서직으로의 진로결정은 보통(3.39점)을 조금 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다만 사서직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공공도서관에 국한된 단편적인 연구이며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보다 전문성을 가진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역량은 일반 대학생보다 높은 수준인가?'에 대한 논의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역량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자기성찰, 자기표현, 진로성찰, 진로관리 역량의 평균점수는 3.79점으로 선행연구[17]에 제시된 대학생

진로역량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Table 11).

Table 11. Comparison of career competency scores

variable	undergraduate	LIS undergraduate
career reflect	3.74	3.96
introspection	3.77	4.03
self-express	3.60	3.97
networking	3.24	3.23
career mgt	3.42	3.76
mean	3.55	3.79

네트워크 역량을 제외한 모든 요인의 점수가 높았으므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역량은 대학생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문헌정보학이 타 전공과 다른 점은 사서 자격증을 취득을 통한 전문성의 부여로 볼 수 있는데, 전문직 인식과 진로성찰($r=.194$), 자기표현($r=.191$), 네트워킹($r=.180$), 진로관리($r=.251$)는 모두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므로 사서의 전문성이 높은 진로역량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 또한, 사서직 진로결정과 진로관리($r=.491$), 네트워킹($r=.468$), 자기표현($r=.455$), 진로성찰($r=.215$), 자기성찰($r=.374$)은 낮거나 보통 수준의 상관관계 나타내므로 사서직 진로결정 또한 높은 진로역량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것이다.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역량이 높은 원인은 본 연구의 측정도구를 통해 밝혀지지 못했지만,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역량 중 사서직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부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다. 분석결과 진로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자기성찰, 진로관리, 네트워킹 역량은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서직 진로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역량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서직으로 진로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 세부적으로 자기성찰 역량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등을 살펴보고 진로에 적용하는 역량으로 자기평가를 통한 가능성을 성찰하는 역량이다. 네트워킹 역량은 다양한 사람과 친분을 쌓고 진로에 대한 조언자와 희망 직종 종사자를 만나기 위한 노력 등 대인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역량이다. 진로관리는 진로 실현을 위해 계획을 수립·검토하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 준비하며, 진로 관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으로 진로와 관련된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는 역량이다. 종합하면, 진로와 관련해서 자신의 장단점을 성찰하는 학생, 대인관계를 형성·발전시키는 학생, 계획성 있게 자신의 진로를 관리하는 학생은 사서직을 희망하는 성향이 강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정보학 전공자는 사서직을 전문성이 높은 직업으로 인식하지만,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성은 자신의 생각보다 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 진로준비 수준인 진로역량은 높은 수준이며, 일반 대학생의 평균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셋째,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서직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성찰, 진로관리, 네트워킹 역량으로 이는 자신의 장단점을 통해 계획성 있게 진로를 준비하고, 대인관계를 발전시키는 학생들이 장차 사서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초연구로서 현시대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사서직에 대한 인식과 진로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사서직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발견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와 관련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으므로 이 연구결과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진로지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진로역량, 사서직 진로결정 수준, 사서직 전문직 인식 등 변수들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파악해 보다 발전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문헌정보학 전공자의 진로역량이 높은 이유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 등 진로와 관련 다양한 변수를 이용해 문헌정보학 전공자를 위한 다양한 진로연구가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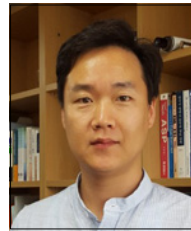
References

- [1] J. W. Nam, Y. K. Choi,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niversity Employment Support Program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12, No.1, pp.66-75, 2022.
DOI: <https://doi.org/10.22156/CS4SMB.2022.12.01.066>
- [2] J. H. Rhim, "A Study on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Policy on the Career Decision and Life Quality for Students majoring in Culture and Arts-Focused on the intermediary effect of government trus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8, pp. 523-538, 2021.
DOI: <https://doi.org/10.5762/KAIS.2021.22.8.523>
- [3] M. Y. Kang, "The Analysis of Education Needs on Career Competency Education for University

- Students",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0, No.3, pp.23-47, 2020.
DOI: <https://dx.doi.org/10.35273/jec.2020.10.3.002>
- [4] E. J. Kim, H. N. Sung, T. W. Le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Motivation for Career Choices, Career Capabilit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Industrial Information System*, Vol.26, No.4, pp.73-89, 2021.
DOI: <https://dx.doi.org/10.9723/jksiiis.2021.26.4.073>
- [5] B. W. Choi, J. H. Choi, H. G. Kim, "A Study on the Factors of Career Decision-making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9, No.3, pp.53-71, 2008.
DOI: <https://doi.org/10.16981/kliss.39.3.200809.53>
- [6] J. M. Lee. "An Analysis on Preferred Occupation and its Readiness to Students in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0, No.2, pp.473-490, 2009.
DOI: <https://doi.org/10.16981/kliss.40.2.200906.473>
- [7] J. M. Lee, "A Study on Employment Analysis of Graduates Major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case of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n Bibliograph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3, No.4, pp.125-139, 2012.
DOI: <https://doi.org/10.14699/kbiblia.2012.23.4.125>
- [8] J. Cho, J. W. Lee, "Study about Library and Information Center's Imag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tudents as Workpla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50, No.3, pp.113-132, 2016.
DOI: <https://doi.org/10.4275/KSLIS.2016.50.3.113>
- [9] J. W. Nam, S. Y. Lee, "The Effect of Career Maturity of College Student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n the Pursuit of Professionalism: Moderating Effects of Professor-Student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35, No.2, pp.167-186, 2018
DOI: <https://doi.org/10.3743/KOSIM.2018.35.2.167>
- [10] H. W. Lee, J. H. Kwon, J. H. Kim, "Analysis of the Influences and Meanings of Interaction between Professor and Student",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Vol.15, No.4, pp.27-55, 2019.
DOI: <https://doi.org/10.26857/JLLS.2019.11.15.4.27>
- [11] J. E. Jeong, C. Y. Jung,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Competencies Scale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49, No.3, pp.91-111, 2017.
DOI: <https://doi.org/10.23840/agehrd.2017.49.3.91>
- [12] H. Y. Oh, G. E. Kim,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for Librarians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32, No.3, pp.237-260, 2015.
DOI: <https://doi.org/10.3743/KOSIM.2015.32.3.237>
- [13] Carrer Net, Department information. [cited APR. 8], Available From: <https://www.career.go.kr> (accessed APR. 13, 2022)
- [14] Y. K. Park,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Family Medicine*, Vol.22, No.1, pp.43-51, 2001.
- [15] J. O. Cohen.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pp.408-414, 1988.
- [16] J. Y. Park, "An Investigation on the Acknowledgement on Librarians by Information Users: The Focusing of Case Study on Municipal S Library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7, No.3, 189-206, 2010.
DOI: <https://doi.org/10.3743/KOSIM.2010.27.3.189>
- [17] J. E. Jeong. *A Multilevel Analysis of Student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n Career Competencies of Undergraduate Studen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pp.85, 2017.

남 재 우(Jae-Woo Nam)

[정회원]



- 2009년 2월 : 중앙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기록관리학석사)
- 2011년 8월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정보학, Data science

이 수 영(Su-Young Lee)

[정회원]



- 2008년 8월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문헌정보교육학 석사)
- 2017년 2월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박사)
- 2011년 3월 ~ 현재 : 대림대학교 도서관미디어정보과 교수

<관심분야>

Information Library service, Archives